

한국시리즈 다승왕 우뚝 선 'MZ 투수'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8> 투수 광도규

“제가 올라가서 잘 막으면 팀이 역전했는데 그런 게 좋은 기운이지 않을까 싶어요. 타자들을 믿고 불펜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서로의 믿음이 바탕이 됐죠.”

올 시즌 KIA타이거즈에는 또 하나의 히트 상품이 탄생했다. 타석에서는 김도영이 '슈퍼스타'의 위용을 과시했다면 마운드에서는 광도규가 'MZ 투수'로 존재감을 굳건히 했다.

경기장 안팎의 광도규는 밍지 않은 개구쟁이였다. 스스로 철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괴짜 같은 모습들을 선보였지만 동료들이나 팬들에게 결코 미움받을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됐다.

물론 퍼포먼스만으로 선수가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광도규 역시 지난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5라운드(전체 42순위)로 KIA의 지명을 받은 뒤 2년 만에 필승조로 발돋움할 만큼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광도규는 프로 입단 직후인 2022년 제주 마무리 캠프와 2023년 합평 퓨처스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 제구와 구위 등에 대해 호평을 받았고, 2023시즌 시범경기를 앞두고 열린 자체 연습경기(흑백전)에서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황대인, 김석환의 중심 타선을 삼자범퇴로 처리하며 김종국 전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해 깜짝 개막 엔트리 발탁 올해는 필승조 중심에 발돋움 이의리에 세리머니 바친 괴짜 “내년에는 철들어 돌아올 것”

비시즌 기간 완벽한 준비를 결과로 증명된 광도규는 시범경기 엔트리에 전격 포함됐다. 이어 시범경기 5경기에서 4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신인 중에는 유일하게 개막 엔트리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광도규는 2023시즌 71일간 1군 엔트리에 등록된 가운데 14경기에서 11.2이닝을 소화하며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8.49의 성적을 남겼다.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인 만큼 시즌 직후 호주 프로야구(ABL) 캔버라 캐벌리와 미국 드라이브라인에 파견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받았다.

유학을 다녀온 광도규는 이범호 감독과 손승락 수석 코치, 정재훈 투수 코치, 이동걸 불펜 코치 아래에서 필승조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시범경기 4경기에서 3.2이닝을 무실점으로 소화하며 다시 한번 '미스터 제로'의 위용을 과시했다.

정규시즌에 돌입한 뒤 광도규는 71경



KIA타이거즈 광도규가 지난달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 6회초 2사 1루에서 이재현을 땅볼로 처리하며 수비를 끝낸 뒤 마운드를 내려오며 유니폼을 풀어헤쳐 이너웨어에 새긴 이의리의 이름과 등번호를 보이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기에서 55.2이닝을 소화하며 4승 2패 16홀드 2세이브와 평균자책점 3.56의 성적을 거뒀다. 장현식과 전상현, 정해영의 'J-J-J 트리오'와 함께 가장 믿음직한 불펜 자원으로 거듭난 것.

한국시리즈에서도 광도규의 존재감은 여전했다.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과 2차전, 4차전, 5차전에 모두 구원 등판한 광

도규는 4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피안타는 두 개에 그쳤고 사사구는 전무했던 완벽한 투구였다.

특히 광도규는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2승을 챙긴 유일한 투수가 됐다. 1차전에서는 0-1로 뒤진 7회초 2사 2루에서 구원 등판해 르윈 디아즈를 삼구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곧바로 4-1 역전에 성공

했고, 5차전에서는 5-5로 맞선 6회초 시작과 함께 구원 등판해 실점 위기 없이 수비를 마친 직후 6-5 역전을 이뤘다.

화끈한 세리머니 역시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1차전에서는 디아즈를 삼진으로 잡은 뒤 팔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고, 2차전에서는 김현준을 뜯공 처리한 뒤 관중석을 향해 양손을 들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이어 4차전에서는 디아즈에게 병살타를 유도한 뒤 이의리의 번호가 쓰인 모자를 옆으로 돌려줬고, 5차전에서는 이재현을 땅볼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내려오며 유니폼을 풀어헤쳐 이의리의 이름과 등번호를 내보이기도 했다. 우승 직후에는 SNS에 한 팬의 메시지와 함께 '누나 내가 해냈어'라는 익살스러운 자축 메시지도 업로드했다.

광도규는 우승을 확정 지은 뒤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 내보내 주셨는데 그 믿음에 보답한 것 같다. 경기에 나갈수록 더 감사한 마음이었다"며 "한국시리즈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한 것 같다. 배운 점이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가 올라가서 잘 막으면 팀이 역전했는데 좋은 기운이 있었던 것 같다. 팀원들의 끈끈한 믿음도 있었다"며 "세리머니는 지금은 부끄러울지라도 나이를 먹었을 때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다. 다만 철없고 부끄러운 행동은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전남, 전지훈련 메카로 우뚝

작년 9월부터 62개종목 2436팀 방문 연인원 84만명...경제 효과 801억 전국·소년체전 등 성공 개최 영향 일선 시군의 다양한 지원책도 한몫

전해의 경관과 풍부한 먹거리를 갖춘 전남지역이 전국 운동부의 전지훈련 메카로 우뚝서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24시즌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 참여를 위해 62개 종목 2436개 팀, 연인원 84만 명의 선수단이 전남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지훈련 선수단과 가족이 전남에 체류하면서 숙박과 음식, 마트, 관광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80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시즌 유치 인원 73만 명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풍부한 관광 자원과 맛깔스런 남도음식을 갖춘 데다 최근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을 성공 개최하면서 방문자가 늘었고, 전지훈련 최적지로서 전남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지훈련 주요 운동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태권도, 전제 유치 종목의 5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경기, 서울, 광주, 전북, 경북 순으로 전남을 찾았다.

전남 일선 시·군에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숙박비·식비·간식비·이동차량 지원, 경기용품 지급, 관광체험 지원, 스포브리고 개최비 지원 등 자체 예산

19억 원을 들여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친 점도 한몫했다.

실제로 강진군은 전국 규모 펜싱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1곳이 부족해 장흥군과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 군 단위로는 이례적으로 선수단 3000여 명 규모로 5일간 개최하는 '제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선수권대회' 유치가 성공했다.

해남군은 전문 트레이너 5명이 상주하는 동계전지훈련 재활센터를 무료 운영해 1600명이 이용했다. 완도군은 수영운동, 수암마사지 등 해양치유센터의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 43개 팀, 870명을 유치했다.

전남도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종합 평가를 진행, 격려금 지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최우수상 강진군 △우수상 해남군·목포시 △장려상 여수시·영광군 △노력상 완도군·무안군이 선정됐다. 부상으로 최우수상에 6000만 원, 우수상에 4000만 원, 장려상에 2000만 원, 노력상에 1000만 원의 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시군에 감사의 표한다"며 "지방소멸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활인구 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전남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 관광 홍보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쿠웨이트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차전을 앞둔 12일(현지 시간) 쿠웨이트 압둘라 알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스

홍명보호, 북중미월드컵 본선행 독주 체제 굳히나

오늘 오후 11시 쿠웨이트와 격돌 3승1무... 중동 2연전 싹쓸이 도전

무패 행진을 달리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 획득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홍명보호가 중동 2연전에 나선다.

홍명보(사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 자베르 알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후 11시에는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6차전을 치른다. 6차전은 당초 원정 경기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

파로 중립으로 열리게 됐다.

홍명보호는 3차 예선에서 무패 행진(3승 1무·승점 10)을 달리며 B조 선두에 올라 있다. 2위 요르단(2승 1무 1패·승점 7·득실 +4)과 3위 이라크(2승 1무 1패·승점 7·득실 +1)가 모두 승점 3점, 1경기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3차 예선에서는 각 조 상위 2개 국가에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이 주어진다. 이번 A매치 기간에는 이라크와 요르단의 맞대결이 예정된 만큼 홍명보호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본선 진출의 8부 능선을 넘을 수 있다.

홍 감독은 이번 중동 2연전을 본선 진출의 승부처라고 평가한 만큼 최정예 멤버를 꾸렸다. 특히 주장인 손흥민(토트넘

홉스퍼 FC)이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돌아온 것이 반갑다. 손흥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와 UEFA(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등 세 경기 연속으로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애스턴 빌라 FC를 상대로는 도움을 올렸고, 대표팀 소집 직전인 잉스위치 타운 FC와 맞대결에서는 풀타임 활약하며 몸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했다.

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FC)은 양제 SCO를 상대로 2득점 1도움을 올렸고, 이재성(1. FSV 마인츠 05)과 황인범(페예노르트 로테르담)도 나란히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알레리아 시티 FC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한규빈 기자